국제 금융 속보

국제금융센터
Flash News
2023. 2. 15
해외동향부 (제 6442)

■ **주요 뉴스: 미국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시장 예상치 상회, 통화긴축 장기화 가능성 부각**

○ 연준 주요 인사, 추가 금리인상 강조, 제약적 금리수준에 근접했다는 의견도 존재

○ 아일랜드 중앙은행 총재,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ECB의 금리인상 지지

○ 일본 '22년 4/4분기 성장률, 예상치 하회, 급격한 통화정책 완화 중단은 어려울 소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과 경기연착륙 기대 등이 영향**

주가 약보합[-0.03%], 달러화 약세[-0.1%], 금리 상승[+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 등으로 약보합, 기술주는 강세
유로 Stoxx600지수는 통신관련주 중심으로 매수 늘어나며 0.1%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일부 연준 인사의 제약적 금리수준 근접 발언 등이 영향
유로화가치는 0.1% 상승, 엔화는 0.6%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종금리 상향 전망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7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72.1원, +2.7원) 0.3% 하락, 한국 CDS 하락

		2/14일	2/1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136.1	4,137.3	-0.03%
	유럽	462.40	462.03	0.08%
	중국	3,293.3	3,284.2	0.28%
	일본	27,603	27,427	0.64%
	한국	2,465.6	2,452.7	0.53%
환율	달러지수	103.26	103.35	-0.09%
	유로화	1.0738	1.0723	0.14%
	엔화	133.16	132.42	-0.56%
	위안화	6.8279	6.8183	-0.14%
	원화	1,269.4	1,277.3	0.62%

		2/14일	2/13일	전일대비
국채 금리 10y	미국	3.74%	3.70%	4bp
	독일	2.44%	2.37%	7bp
	영국	3.52%	3.40%	12bp
CDS 5y	한국	41bp	42bp	-1bp
	중국	62bp	62bp	0bp
위험 지표	EMBI+	-	385	-
	VIX	18.91	20.34	-7.03%
원자재	WTI유	79.06	80.14	-1.35%
	구리	409.0	405.8	0.79%
	금	1,854.3	1,853.5	0.0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시장 예상치 상회. 통화긴축 장기화 가능성 부각**

○ 1월 소비자물가(CPI)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각각 하락(6.5%→6.4%) 및 상승(0.1%→0.5%). 근원 CPI의 경우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각각 하락(5.7%→5.6%) 및 보합(0.4%→0.4%). 1월 CPI 및 근원 CPI의 연간 상승률이 모두 시장 예상치(각각 6.2%, 5.5%)를 상회했고, 하락세도 이전에 비해 둔화

○ 항목별로는 주거비(월간 상승률 0.7%)와 휘발유(월간 상승률 2.4%)가 CPI의 상승에 크게 기여. 다만 주거비 상승이 약화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CPI 상승률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1월은 통상적으로 기업이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는 시기이므로 과거에도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

○ 이번 결과는 디스인플레이션 약화를 시사(LPL Financial의 Jeffrey Roach). 인플레이션은 향후 하락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간 내에 연준이 원하는 수준까지의 도달은 어렵고, 그 과정 역시 고통이 따를 전망(Wells Fargo)

○ CME의 FedWatch Tool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현재 4.50%~4.75%)는 향후 3월, 5월, 6월 FOMC에서 0.25%p씩 인상되어 6월 정점(5.25%~5.50%)에 이르고 12월에는 첫 금리인하가 이루어져 5.00%~5.25%까지 낮아질 가능성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주요 인사, 추가 금리인상 강조. 제약적 금리수준에 근접했다는 의견도 존재**

○ 리치몬드 연은의 바킨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경기둔화 위험보다는 고물가 위험이 더욱 크며, 특히 예상보다 강한 노동시장이 매우 놀랍다고 평가

○ 댈러스 연은의 로건 총재는 연방예금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좀 더 높은 수준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또한 통화정책 관련 유연성을 유지하고 경제 전망 혹은 금융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 긴축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

○ 필라델피아 연은의 하커 총재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추가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있으나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내년 금리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첨언

■ **아일랜드 중앙은행 총재,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ECB의 금리인상 지지**

○ 맥클로프 총재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금리를 3.5% 이상으로 높이고, 해당 수준을 연말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 최근 인플레이션 관련 완화 신호가 있으나 ECB의 목표치와 비교할 때 괴리가 크다고 지적. 한편 연내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

■ **영국 '22년 4/4분기 임금상승률, '01년 이후 최고치.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

○ 작년 4/4분기의 연간 임금상승률은 6.7%를 기록하여 전기(6.5%) 및 예상치(6.5%) 상회. 이번 결과는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영란은행 인사들의 의견을 뒷받침할 전망. 임금상승은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로 인식

■ **일본 '22년 4/4분기 성장률, 예상치 하회. 급격한 통화정책 완화 중단은 어려울 소지**

○ 작년 4/4분기 성장률은 0.6%를 기록하여 전기(1.0%) 및 시장 예상(2.0%)를 모두 하회. 전기에 비해 성장률이 저조했을 뿐 아니라, 대외 경제여건이 부진한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현행 초완화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Daiwa)

○ 한편 일본 정부는 우에다 가즈오 전 도쿄대학 명예교수를 일본은행 차기 총재로 지명. 최근 채권시장 움직임은 우에다 지명자가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에 수익률곡선제어(YCC) 중단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발신

■ **OPEC, 금년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 조정**

○ 금년 글로벌 원유 수요가 전년비 일일 232만배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이전 대비 일일 10만배럴 높은 수준. 중국의 경제활동 정상화 조치가 글로벌 원유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 반면 공급 전망은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 등을 이유로 일일 10만배럴 하향 조정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2/15 현지시각 기준)**

○ ECB 라가르드 총재 강연. 미국 1월 소매판매 및 2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 미국 1월 산업생산 및 기업재고, 영국 1월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물가 목표 달성, 상품·주거서비스·비주택서비스 물가의 향방에 좌우 - WSJ**
(Inflation Is Falling, and Where It Lands Depends on These Three Things)

○ 금년 미국에서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연말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존재. 그러나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인 소비지출 등에서 아직까지 어떠한 침체 징후도 발견되지 않고 있고, 최근 소득(이전지출 제외)은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증가. 향후 물가 하락 여부는 아래의 3가지 항목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

○ 첫째, 상품 물가. '21년 초 상품 물가의 가파른 상승이 인플레이션 급등을 초래했으나 공급망 회복과 주요 소비대상의 이동(상품→서비스) 등으로 디스인플레이션 시작. 다만, 향후 상품의 재고가 정상수준으로 회복되고 글로벌 성장이 재개되면서 해당 부문의 인플레이션 하락 압력은 약화될 소지

○ 둘째, 주거서비스 물가. 신규 임대료의 소비자물가(CPI) 반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차 영향으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봄 이후 하락 전환을 예상. CPI 항목에서의 비중은 1/3 수준으로 상당히 높지만, 연준이 중시하는 PCE물가에서의 비중은 15%로 관련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

○ 셋째, 비주택서비스 물가. 슈퍼 근원 인플레이션으로 불리고 있으며 연준 파월 의장은 임금이 해당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 최근 임금상승률 둔화 징후가 발생하고 있지만 연준의 물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여 정책당국의 우려가 지속

■ **미국 통화정책, 연준은 1월 소비자물가 상승에도 금리인상에 신중할 필요 - 블룸버그**
(This Inflation Report Will Lead to Bad Fed Decisions)

○ 1월 소비자물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고물가 지속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연준이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지속할 수 있다는 시각이 확산. 이는 노동시장 과열이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 때문. 또한 자연 실업률을 현 실업률(3.4%) 대비 크게 높은 5% 이상으로 가정하는 것도 또 다른 원인

○ 다만 최근 경제지표들은 낮은 실업률과 임금상승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을 제시. 또한 일부에서는 연준이 이력현상(Hysteresis)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 이들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이 자연실업률의 하락으로 연결.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연준은 금리인상을 서두르지 않는 신중함이 요구

■ **신흥국 통화, 연쇄적인 평가 절하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 - 블룸버그**
(The Devaluation Run in Emerging Markets Is Just Getting Started)

○ 금년 이집트, 파키스탄, 레바논 등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해 자국 통화가치 절하에 나섰고, 이외에 20개국 이상이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대기. 이로 인해 프론티어 국가들의 급격한 통화가치 하락 가능성과 이에 따른 물가 및 부채부담 우려가 확대

○ 신흥국과 개도국들은 저금리 시기에 부족한 국내저축을 대외차입 확대 등으로 보충했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및 금리인상 여건이 지속되면서 채무상환 부담과 환율 방어 비용이 증가

○ 일부 신흥국 및 프런티어 국가의 추가적인 통화가치 하락 가능성이 상당한 가운데, 외부 완충 요인의 약화와 내부 방어 능력의 고갈이 발생(Wells Fargo)

■ **세계화의 최적화 방식, 지역화를 통한 해법이 대안 - 블룸버그**
(Unlocking Globalization's Goldilocks Formula)

○ 세계화의 열풍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냉전, WTO의 영향력 감소 등으로 점차 종언을 고하는 상황. 이와 관련한 대안으로 지역화가 거론. 지역화는 세계화의 장점을 대부분 제공하는 동시에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성을 보유

○ 지역화가 부각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도 세계화가 지역화라는 형태를 지니고 있고, 공급망 단순화를 위해서도 지역화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 또한 무역은 인접국보다 원거리 국가와 거래에서 보다 큰 피해가 발생

■ **미국 경기연착륙의 불확실성, 금리인하 연결 기대는 과도한 편 - Financial Times**
(Soft landing doubts creep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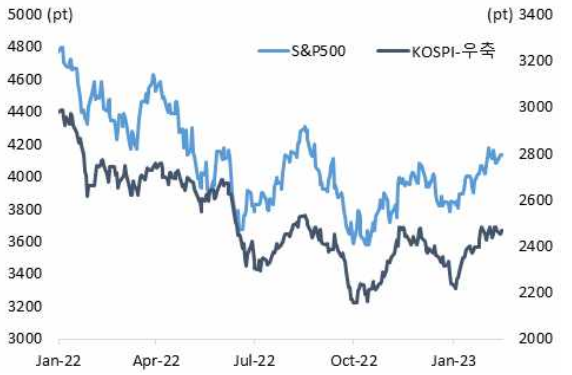
■ **미국의 양호한 주택경기, 고물가 통제 위해 모기지 금리 상승이 요구 - 블룸버그**
(Higher Mortgage Rates Is What the Housing Market Needs Now)

■ **유럽 채권가격 상승, ECB의 매파적 기조 유지에 유의 - Financial Times**
(2 fast, 2 furious in European credit markets?)

■ **중국 경제, 수출 둔화 등이 금년 성장의 장애물로 작용할 소지 - 블룸버그**
(China's Economic Bonanza From Record Trade Surplus Is Fading)

금융시장 주요 지표

S&P500 및 KOSPI



미국 및 한국 국채 10년물

자료 : Bloomberg

달러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브렌트유 및 유럽 천연가스

자료 : Bloomberg

VIX 및 EMBI+

달러-원 스왑베이시스 및 한국 CDS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